

### 겨울과 봄 사이... 해설이 있는 음악회로

광주시향, 25일 문예회관



서곡으로 막을 열며 차이코프스키의 '호두까기 인형' 중 '꽃의 왈츠', 비제의 '카르멘' 중 '꽃의 노래' 등 봄 내용이 가득한 곡들을 들려준다.

또 국립오페라단의 '사랑의 묘약' 등에 출연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오페라 가수인 테너 전병호씨가 푸치니의 '라 보엠' 중 '그대의 찬송', 이순인곡 '고향의 봄' 등을 선사한다. 티켓 가격 전석 1만원. 문의 062-524-5086. /김민기자 mekim@kwangju.co.kr

### 정명훈, 파리에 北 은하수 관현악단 지휘

내달 24일 北-佛 합동공연

지휘자 정명훈 서울시향 예술감독이 다음달 프랑스 파리에 북한의 관현악단을 지휘한다.

정 감독은 21일 오전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월14일 파리의 살 플레엘에서 북한의 은하수 관현악단과 프랑스의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합동 공연을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공연은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니의 초청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며 "두 오케스트라는 함께 브람스의 교향곡 제1번을 연주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프랑스 교향곡은 은하수 관현악단 단원

70명과 라디오 프랑스 필 단원 70명이 함께 연주한다.

정 감독은 지난 19일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관계자를 만나 남북 합동 공연을 논의했지만, 현재 남북 관계가 경색돼 있어 당장은 성사시키기 어려웠다고 전했다. 그 대신 3월에 열리는 북한과 프랑스 오케스트라의 공연이 남북 음악가가 만나는 첫 걸음이 되길 바란다

그는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남북 음악가가 만나서 함께 연주하는 것"이라며 "(3월 공연의) 지휘는 내가 하고 라디오 프랑스 필에는 서울시향 단원 4명(외국인)이 있으니까 남북 그리고 프랑스 연주자의 모임"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시립합창단, 비발디 '글로리아'로 만나요

내일 문예회관에서 정기연주회



그레이스', '죄에서 자유를 얻게함은' '유 레이즈 미 업' 등을 들려준다.

광주시립합창단 147회 정기연주회가 23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연주회에서 공연되는 대표 레퍼토리는 비발디의 '글로리아'다. 합창단원인 이명진·박순영씨와 함께 소프라노 박계(조선대 교수)씨가 특별출연하며 파이프 오르간의 황양숙, 아시아 아트심포니오케스트라가 협연한다. 박씨는 또 최선용곡 '탄식가'와 민요 '밀양 아리랑'도 함께 선보인다.

그밖에 흑인영가 '깊은 강', '어메이징 그레이스', '죄에서 자유를 얻게함은' '유 레이즈 미 업' 등을 들려준다. 현재 시립합창단은 삼십지휘자가 공식 상하며 이번 연주회는 부지휘자인 이준(사진)씨가 지휘봉을 잡는다. 이씨는 전남대와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광주대 대학원에서 합창 지휘를 전공했다. 현재 광주과과남성합창단, 광주장로찬양악단도 지휘하고 있다. 티켓 가격 1만원. 062-613-8245. /김민기자 mekim@kwangju.co.kr

## “광주의 예술적 에너지는 나의 창작 원동력입니다”

### 세계가 주목한 재미화가 변종근씨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재미화가 변종근(62)의 첫 마디는 '광주에찬'으로 시작됐다.

지난 20일 광주를 찾은 그를 만났을 때, 그에게서는 먼길을 돌아온 나그네의 몸에서 날 법한 방랑의 냄새가 났다. 수년 전부터, 대구가 고향인 그가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광주에 오는 것은 긴 타국 생활로 지친 몸과 마음에 열정을 채우기 위해서다.

1978년 동아미술상을 받은 뒤 1981년 도미한 그는 30여 년 동안 뉴욕에서 활동하고 있다. 일상의 다양한 오브제와 회화를 결합시킨 앙상블라주 작품으로 명성을 얻고 있다.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을 포함해 미국 인디애나폴리스 미술관, 알바니 미술관, 클리블랜드 미술관 외에 파리, 도쿄 등 세계 정상급 미술관에서 그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또 지난 2007년에는 뉴욕에서 활동하는 대표적 한국 작가로 선정돼 '세계 속의 한국미술'전에 초청됐고, 2000년 뉴욕타임스는 문화면 전면을 할애해 "삶 자체가 예술"이라며 찬사를 보내기도 했다.

브루클린에 있는 아파트 겸 작업실에는 그가 뉴욕을 비롯한 전 세계의 베품시장에서 수집해온 독특한 오브제들이 빼곡하게

쌓여있다고 한다. 웃는 얼굴로 바뀌 단 불상, 마네킹, 석고상, 인형, 가면, 패종시계, 골동품 악기 등은 그것 자체로 설치예술품이다. 그는 아내와 자신의 전변번호는 기억하지 못해도 특정 오브제들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와 어떻게 손에 넣었는지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프랑스문화원의 초대로 뉴욕의 인비지블북 아트센터에서 150여 점의 작품을 전시하기도 했다. 프랑스문화원이 자국 작가가 아닌 아시아 작가의 전시를 얻 것 자체가 현지에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다.



변종근의 작업실의 다양한 오브제. 그는 일상의 물건에 예술적 혼을 불어넣고 있다.

### 다양한 오브제와 회화 결합, 앙상블라주 작품으로 명성 28일 뉴욕현대미술관에서 다큐 '변, 발견된 오브제' 상영

오는 28일에는 뉴욕현대미술관에서 베를린영화제 등 각종 영화제를 휩쓴 다큐멘터리 작가 마리 로시에 감독이 만든 변종근의 다큐멘터리 '변, 발견된 오브제'도 상영된다.

"광주의 미술 관계자들이 저보고 '이젠 광주 사람 같다'고 하더군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뉴욕에서도 경험할 수 없었던 예술의 힘을 광주에 오면 느껴요."

이번 방문에서 그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광주의 젊은 작가들의 작품이었다. 광주시립미술관이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북경창작센터 입주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한 전

시를 보며, 그는 광주의 가능성을 발견했다고 한다.

"이렇게 독창적인 작가들이 많다는 것은 광주의 예술이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왔다는 것을 뜻해요. 공공미술관이 작가 발굴을 위해 젊은이들을 중국으로 보내고, 전시를 후원해주는 시스템도 훌륭했습니다." 지역의 젊은 작가들을 위해 애정이 어린 조언도 잊지 않았다.

"세계 미술계가 굉장히 힘든 시기를 맞았어요. 뉴욕도 전시회가 줄고 화랑을 찾는 사람도 없어요. 켈시가 초상집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덩달아 작가들도 살기 어려워졌는데, 원래 작가는 힘든 길을 걷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 해요. 그 어둠을 즐겁게 받아들여야 좋은 작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는 또 지역의 문화 자산과 젊은 작가들의 열정만이 광주를 진정한 의미의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5·18만중광장의 아픔은 물질로 치유될 수 없습니다. 5월의 상처를 문화로 치유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광주는 이미 보여주고 있고, 곧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사진=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22nd Wine & Dine

# Chateau Pavie dinner '100점 만점 와인'

황홀경을 부르는 최고의 와인. 한국 최초! 샤도 빠비 오너와 함께하는 격조 높은 와인 메이커스 디너에 와인 애호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12. 3. 2 (fri) 19:30 Reception 19:00

금수장관광호텔아리랑하우스 | 문의 (062) 525-2111 | www.geumsoojang.com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에 위한 대소 회화장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식

Wine List

- Chateau Magneau Blanc 2006
- Chateau Monbousquet Blanc 2010
- Esprit de Pavie 2008
- Chateau Monbousquet Rouge 2009
- Chateau Pavie 2007
- Chateau Pavie 2005

'생대밀리옹에서 빠비를 능가하는 것은 슈발블랑으로, 품질이 아니라 가격에서만 그러하다.' -와인의 황제 로버트 퍼커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Chateau Pavie SAINT-ÉMILION GRAND CRU Appellation Saint-Émilion Grand Cru Controlée 2005

최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특허청 서비스표등록 제41-0187289호

Be natural Be delicious

150여가지의 즉석메뉴(샐러드, 양식, 일식, 중식, 한식)를 온 가족이 마음껏 취향에 따라 드실수 있는 즉석 프리미엄뷔페

각종 모임 및 행사예약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

- 돌잔치, 피로연, 회갑연, 칠순연, 세미나
- 출장뷔페, 도시락

유스퀘어 U-square 예약문의 062)671-1199 |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층

24시간

# 유스퀘어 사우나

각종 편의시설

수면실(침대) · 피부샵(스파·마사지) 인터넷 · 안마기 · 이용원 · 세션 · 세화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전화 062) 352-4455 |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